

#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김춘경\*\*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종단매개효과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의 4차, 5차, 6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서 초기값을 중심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역할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부양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상호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가정 양립 갈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가족관련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 제1저자: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sjhye@knu.ac.kr)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kckyung@knu.ac.kr)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통계청(2017)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 49.7%, 2013년 50.2%, 2015년 51.8%, 2017년 5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은 세밀함과 창의성 등을 내세워 여러 분야의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 자리하고 있어 여성인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사회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한 가정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장여성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5.3%로 직장여성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이러한 문제는 기혼의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양적으로 기혼여성 인력의 꾸준한 노동참여 및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참여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선아·박성민, 2018).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생애주기 과정에서 겪는 취업과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높은 정신장애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8)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성 27.0%, 여성, 28.8%였고, 우울감은 남성 9.7%, 여성 16.8%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모두 여성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혼 직장여성의 경우 우울증이나 만성피로를 더욱 자주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인기 여성의 발달과제로서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함에 따라 겪게 되는 이중부담이 주원인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안윤숙 외, 2016). 이러한 우울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심리적 증상인 동시에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다(유지연·황혜정, 2017). 하지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기혼 직장여성이 직장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과 직장을 오가며 보내는 기혼 직장여성들에게는 두 영역에서의 경험이 전체 삶의 만족도와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활동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제한된 개인의 시간과 역량을 두 영역에 분배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경험이나 만족이 가정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도 가능하므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Clark, 2000). 노동부(2017)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근로자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59.8%가 육아부담이라고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육아를 비롯한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것에 따르는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자원들을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역할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Reppetti, Matthews, & Waldron, 1989),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은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배우자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Ernst Kossek & Ozek, 1998). Pavalko와 Mossakowsik, Hamilton(2003)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azarus와 Folkman(1991)의 상호거래적 이론에 따르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간 갈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안녕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직장과 가정 간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가치관은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된다(손영미·박정열, 2015). 전통적으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의 주된 책임자라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분담이 사회화된 환경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여성이 가지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고 중요해졌다(Kirchmeyer, 2006).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맡는 역할에 대한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은경과 심준섭(2016)의 연구에서 전통적 부부역할관과 개인주의적 결혼관 간의 내면적 충돌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반면,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의 주된 역할인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박경환, 2012). 자녀부양 가치관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맞벌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업무에 몰입하면 경력이 향상되어 미래소득이 증가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지를 제공할 것으로써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향상되어 직장영역과 가정영역 사이에서 긍정적인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곽현주·최은영, 2014). 장영은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였다.

육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에서 자녀양육과 자녀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의 우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최하영·이소민·이호택, 2017). 호윤정과 오영아, 이명선(2015)의 연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신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가사 역할에 대한 이중부담과 남편과의 가사분담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이 우울이나 불안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는 기혼의 직장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자녀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이 가지는 가족 내에서 역할의 인식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부양 인식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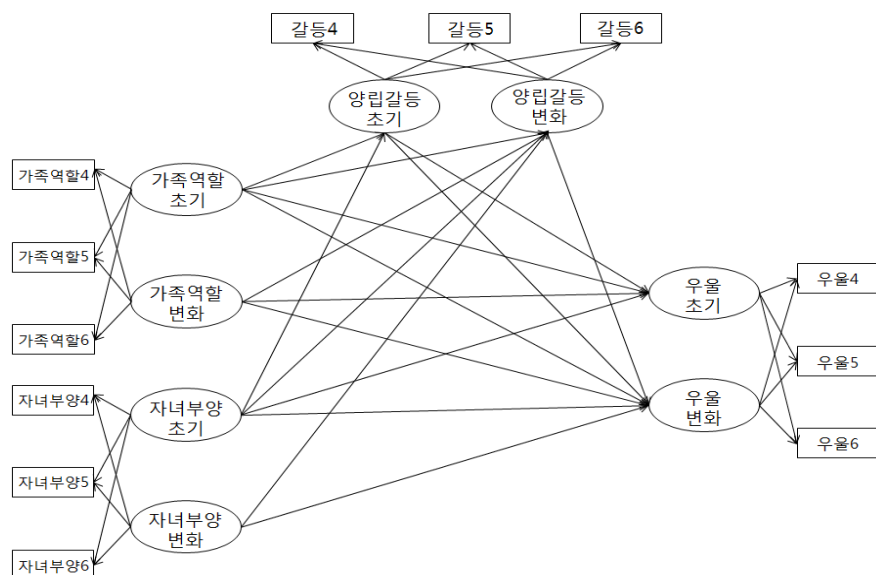
종합하자면, 일-가정 양립 갈등은 기혼 직장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가족 관련 가치관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여성이 가지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장여성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장여성의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개인 내적인 측면의 우울과 개인 외적인 측면인 갈등이 서로 상호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양진희(2016)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가정 양립 갈등과 직장여성의 우울이 상호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서 특정한 처치가 그 이후에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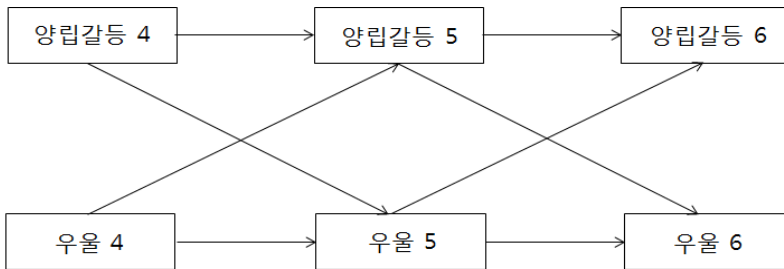
복적으로 측정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상호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이전 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에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의 초기치·변화율과 우울의 초기치·변화율 간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의 초기치·변화율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간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모형



[그림 2] 연구문제 2에 대한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여 현재 6차년도(2016)까지 수집된 자료로써, 다른 자료들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함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혼인상태가 기혼인 여성 2,30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들 중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2년)		N(%)
연령	20대	23(10.0)
	30대	361(15.6)
	40대	809(35.1)
	50대	689(29.9)
	60대	425(18.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63(24.4)
	중학교 졸업	339(14.7)
	고등학교 졸업	794(34.4)

구분(2012년)		N(%)
일자리 종류 지위	대학교 졸업	575(25.0)
	대학원 졸업	35(1.5)
	관리자	10(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88(16.8)
	사무 종사자	197(8.5)
	서비스 종사자	357(15.5)
	판매 종사자	362(15.7)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602(2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89(3.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67(2.9)
	단순노무 종사자	235(10.2)
전체		2,307(100)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한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자료 중 가족관련 가치관(가족 내 역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에 대하여 측정한 4차(2012), 5차(2014), 6차(2016)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의 축약본인 CES-D10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과 관련하여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등과 같이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번(비교적 잘 지냈다)과 8번(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주제로 개발한 척도로,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 생활에 지장을 준다.’ 등과 같이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관련 가치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하다.’, ‘맛벌이 부부의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 등과 같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5번(수입은 각자 관리한다)과 6번(공동명의로 한

다)문항이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보다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총 4문항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역할의 평등함에 대한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부양 가치관은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중 가족부양 인식 관련 가치관 문항 중 노부모의 부양과 관련된 4번을 제외하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시점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그 결과,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시점에 따른 변인별 신뢰도

		4차	5차	6차
가족관련 가치관	가족 내 역할	.664	.678	.705
	자녀부양	.752	.802	.790
일-가정 양립 갈등		.827	.838	.920
우울		.877	.858	.852

### 3. 자료분석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및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와 각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인들의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후 시점의 값을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예측하여 얻어진 자기회귀계수와 한 변인의 이후 시점의 값을 다른 변인의 이전 시점의 값으로부터 예측하여 얻어진 교차지연계수로 이루어져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통계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였으며,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은 결



측자료를 제거하지 않으면서 모든 자료의 케이스에 대한 우도를 계산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장점으로,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측정한다(Arbuckle, Marcoulides, & Schumacker, 1996).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검증과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종단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요인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각 시점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4차(2012년)	5차(2014년)	6차(2016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가족 내 역할 인식	2.748(.481)	2.736(.482)	2.727(.491)
자녀부양 인식	3.011(.475)	3.001(.492)	2.979(.499)
일-가정 양립 갈등	2.058(.377)	2.171(.379)	2.344(.486)
직장여성의 우울	1.356(.402)	1.596(.492)	1.944(.493)

<표 3>을 통해 평균값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변인별 분석모형

직장 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가족 내 역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변화 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표 3>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 변화 패턴을 바탕으로 각 요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에 관한 변화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각각의 변인들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chi^2$	df	p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역할 무변화	15.451	4	.004	.992	.989	.036	2.738*		.101*	
역할 선형변화	.026	1	.872	1.003	1.000	.000	2.751*	-.016*	.114*	.015*
부양 무변화	30.195	4	.000	.975	.967	.053	2.998*		.086*	
부양 선형변화	6.842	1	.000	.977	.992	.052	3.001*	-.001	.068*	.011*
갈등 무변화	586.75	4	.000	.834	.879	.219	2.165*		.097*	
갈등 선형변화	24.590	1	.000	.966	.989	.064	2.054*	.137*	.094*	.018*
우울 무변화	698.71	4	.000	.783	.772	.341	1.587*		.091*	
우울 선형변화	32.543	1	.000	.958	.969	.078	1.351*	.031*	.138*	.077*

\*  $p < .05$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선형변화모형을 각 변인들에 대한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sup>1)</sup>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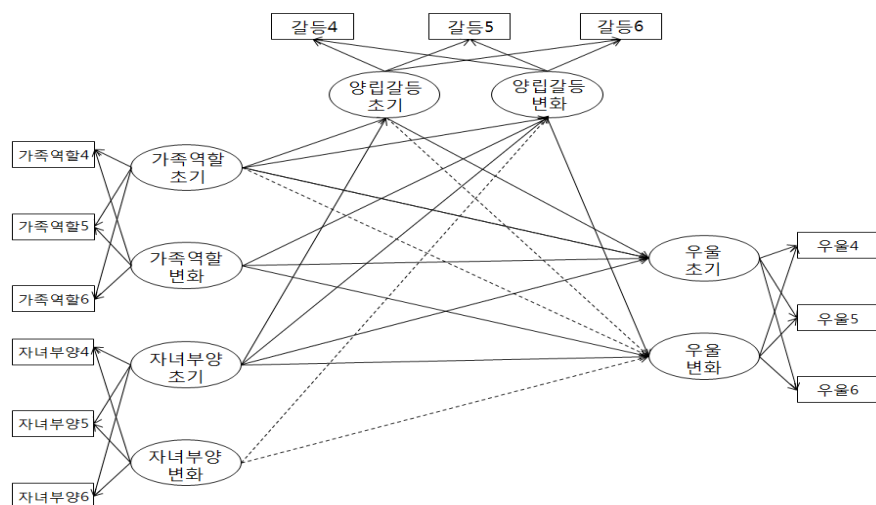
1) 초기치는 변수의 절편으로 관찰시점에서의 변수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변화율은 변수의 기울기로서, 시간의 진행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의미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요인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각 변인의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 = .943, CFI = .966, RMSEA = .055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	-.309	.063	-.308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	-.229	.067	-.457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변화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	.560	.187	.284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	-.442	.079	-.281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	.223	.092	.283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	-.148	.069	-.126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변화	→	직장여성의 우울 변화	.490	.242	.144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	-.178	.079	-.097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변화	-.303	.113	-.224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	.271	.047	.232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	→	직장여성의 우울 변화	.165	.074	.096



[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 유의함 ⇨ 유의하지 않음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에 대해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치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치는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변화율은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의 감소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 넷째,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율은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의 증가는 우울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치는 일-가정 양립 갈등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의 낮은 초기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가정 양립 갈등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치는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부양 가치관의 낮은 초기치는 직장여성의 우울의 증가 정도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Standardized)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치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치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치	-.163*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치 → 일-가정 양립 갈등 초기치 → 직장여성의 우울 초기치	-.135*

\*  $p < .05$

그 결과,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내 역할 가치관 초기치가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여성의 자녀부양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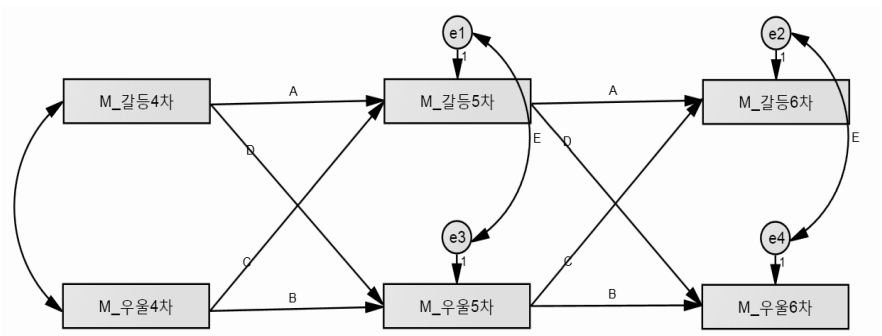
매개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부양 가치관 초기치가 우울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변화율을 중심으로 한 종단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 2를 분석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1)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모형5까지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모형1: 기본모형	11.101	3	.989	.980	.036
모형2: 일-가정 양립 갈등(A)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27.584	4	.976	.993	.053
모형3: 우울(B)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28.042	5	.981	.994	.047
모형4: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우울(C)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28.794	6	.984	.994	.043
모형5: 우울에 대한 일-가정 양립 갈등(D)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제약	33.833	7	.984	.993	.043
모형6: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의 오차 공분산(E) 사이에 동일성 제약	37.421	8	.985	.992	.042



[그림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제약 모형

모형1의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모형6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6의 각 경로계수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최종모형 6의 모수추정치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갈등 4차	→	갈등 5차	.613*	.015	.607
우울 4차	→	우울 5차	.603*	.014	.468
갈등 4차	→	우울 5차	.157*	.017	.116
우울 4차	→	갈등 5차	.032*	.012	.033
갈등 5차	→	갈등 6차	.613*	.015	.489
우울 5차	→	우울 6차	.603*	.014	.607
우울 5차	→	갈등 6차	.032*	.012	.034
갈등 5차	→	우울 6차	.157*	.017	.119

\*  $p < .05$

직장여성의 우울의 이전 시점을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 우울이 .15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의 이전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 시점의 우울이 1 더 높을수록 다음 시점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03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bootstrap)을 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최종모형 6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 (Standardized)
일-가정 양립 갈등 4차 → 우울 5차 → 일-가정 양립 갈등 6차	.033*
우울 4차 → 일-가정 양립 갈등 5차 → 우울 6차	.031*

\*  $p < .05$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았으며, 우울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장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지면 우울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우울은 다시 일-가정 양립 갈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장여성의 우울이 높아지면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다시 우울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 가치관 및 자녀부양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우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먼저 초기치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직장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 역할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 평등을 추구할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최유정과 최미라, 최선헌(2018)의 연구에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낄수록 가정과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떨어진 만족감으로 인해 주관적인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성들이 가지는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서 갈등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한 태도와 전통적인 가치관에 부합한 태도 사이에서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문선희, 2017). Beck(1976)의 인지행동모델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 오류나 왜곡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 형성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해석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촉발할 수 있다. 즉, 기혼 직장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불일치에 대하여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일과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여 갈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우울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녀부양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부양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 자녀를 부양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책임감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기혼 직장여성의 직장에서의 역할수행이 가정생활에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김현동과 이상우(201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자녀부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은 직장에서의 역할에 몰입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지를 제공해주므로 자녀양육이 여성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일치하게 되고,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기강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역할 간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혜림·박보라, 2016). 또한 기혼 직장여성의 유급노동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가정생활에 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중적인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증진으로 인한 자존감이 향상되며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ahelma et al., 2002).

이러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연구결과는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 내 역할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의 증가와 일-가정 양립 갈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장여성이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부양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어 있으며, 자신의 직장생활이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 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이는 남편이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태도가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Voydanoff(2005)의 연구와 함께 고려해보면,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직장여성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 활성화나 탄력근무 등과 같이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에서 제한된 시간을 유연하게 분배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가정에서 직장여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간 중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질수록 직장여성의 우울이 높아지고, 높아진 우울은 다시 일-가정 양립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서 경험하는 갈등의 수준과 여성의 우울 간 상관관계가 있으며 서로 간 영향을 미친다는 Frone와 Russell, Barnes(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직장과 가정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각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이질적일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높아진 우울은 수면장애, 대인관계능력의 감소, 욕구상실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Gray et al., 2013; Park et al., 1997).

다음으로 직장여성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지고, 높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다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혼 직장여성의 높은 우울 수준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켜 다양한 역할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하오령과 권정혜(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높은 수준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직장여성의 경우에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며,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가정생활에 부정적으로 전이되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이 높아지게 된다(신수정, 2017). 높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은 삶의 질을 떨어뜨려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고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Grzywacz & Marks, 2000).

이러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연구결과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 간의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조기의 적절한 개입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의미하며,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 및 치료의 개입 시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횡단적 접근

을 넘어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종단매개효과와의 검증은 기존의 횡단모형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던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하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이전 상태까지 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횡단 연구들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더욱 엄밀하게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이 어떠한 시간적 순서로 발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울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할 때, 직장여성의 우울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해 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부양 가치관 각각이 일-가정 양립 갈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녀부양 책임감에 대한 역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직장여성의 역할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들 중 미혼의 직장여성을 제외하고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장여성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일반화시키는 것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 직장여성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장여성의 개인적인 요인을 비롯해 남편과 부부간의 관계와 관련된 요인들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직장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가족관련 가치관에 대한 자료들 중 가족 내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남성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하게 되었다. 이는 직장여성의 연령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직장여성의 연령에 따른 집단분류를 통해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직장여성의 연령집단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현주·최은영(2014). “일-가정 전이, 직장 내 공정성 및 시간당 임금이 여성관리자의 경력전망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제86권 제1호. 175-210.
- 권혜림·박보라(2016).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393-414.
- 김선아·박성민(2018). “여성근로자의 직장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조직 내 다양성 관리 전략의 역할 검증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97권 제2호. 5-44.
- 김은경·심준섭(2016).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323-347.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동·이상우(2017). “맞벌이 여성근로자의 자녀부양책임감과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이 직장가정과의 긍정적 전이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4호. 83-106.
- 노동부(2017).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서울: 고용노동부.
- 문선희(2017). “중년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가족가치관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제5권. 266.
- 박경환(2012). “기혼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관계가 관리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2호. 879-905.
- 손영미·박정열(2015). “한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203-215.
- 신수정(2017). “여성근로자의 우울 역할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 21. 제8권 제4호. 1027-1041.
- 안윤숙·김홍주·이현진·하영진(201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정요인, 직장요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7권 제1호. 157-185.
- 양진희(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와 어머니의 우울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1053-1077.

- 유지연·황혜정(2017).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 중학생 3학년의 자아인식, 정서문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4권 제1호. 119-144.
- 장영은·박정윤·이승미·권보라(2011). “유자녀 취업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일”.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제29권 제2호. 63-72.
- 최유정·최미라·최선희(2018). “맞벌이 부부의 역할분담이 일가정 갈등과 가정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제19권 제1호. 47-93.
- 최하영·이소민·이호택(2017).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관리자의 직장-가정 간 전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제95권 제4호. 151-191.
- 통계청(2017). *국가통계백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여성가족부.
- 하오령·권정혜(2006).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 건강과 역할 만족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25권 제3호. 675-696.
- 호윤정·오영아·이명선(2015). “보육형태와 가사노동분담이 기혼여성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제41권 제2호. 77-87.
- Arbuckle, J. L., Marcoulides, G. A., & Schumacker, R. E. (1996).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43-277.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Meridian.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Duncan, T. E., & Duncan, S. C.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Ernst Kossek, E., & Ozeki, C. (1998). Work-family conflict, policies, and the job-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A review and direc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human resources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2), 139.
- Frone, M. R., Russell, M., & Barnes, G. M. (1996). Work-family conflict, gender, and health-related outcomes: A study of employed parents in two community sampl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 57.
- Gray, P. H., Edwards, D. M., O'Callaghan, M. J., Cuskelly, M., and Gibbons, K. (2013).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 preterm

- infants—Influence of development, temperament and maternal depression. *Early Human Development*, 89, 625-629.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Family, work, work-family spillover, and problem drinking during mid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36-348.
- Kirchmeyer, C. (2006). The different effects of family on objective career success across gender: A te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2), 323-346.
- Lahelma, E., Arber, S., Kivela, K., & Roos, E. (2002). Multiple roles and health among British and Finnish women: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cial Science & Medicine*, 54, 727-740.
- Lazarus, R. S., & Folkman, S. (1991). The concept of coping. In A. Monat & R. S. Lazarus(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189-206). New York, US: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rk, K. H., Sung, N. J., Choi, S., Cho, S. S., & Jung, S.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tendency, somatic symptoms and drug use in housewiv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8(5), 490-450.
- Pavalko, E. K., Mossakowski, K. N., & Hamilton, V. J. (2003). Does perceived discrimination affect health?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work discrimination and women's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3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petti, R. L., Matthews, K. A., & Waldron, I. (1989). Employment and women's health: Effects of paid employment on women'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11), 1394-1401.
- Voydanoff, P. (2005), Work Demands and Work-to-Family and Family-to-Work Conflic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26, 707-726.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s on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to depression of working women: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ung Hye, Sung\*·Choon 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s in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 orientations to depression of working women. To analyze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 orientation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s, 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were used. The data of this study are KLOWF's 4th, 5th, and 6th longitudinal data that are researched by KWDI. First,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family role value orientations to depression. Also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child support value orientation to depression. Second, the result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at the longitudinal mediated effect between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and working women's depression. The study result suggested a program to reduce depression of working women and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

\* Adjunct Professor, Dep.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family value orientation,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depression,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